S-D31

성인에서 발생한 Henoch-Schönlein 신염의 예후인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난희 · 장원익 · 정지윤 · 김의식 · 정사라 · 최대은 · 나기량 · 이강욱 · 신영태

Henoch-Schönlein Nephritis in Adults : Renal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Nan Hee Kim, Won Ik Jang, Ji Yoon Jung, Eui Sik Kim, Sarah Jeong
Dae Eun Choi, Ki-Ryang Na, Kang Wook Lee and Young-Tai Shi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Henoch- Schonlein (HS) 자반증은 자반, 관절통, 복통 및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개 자연치유가 되지만, 궁극적 예후는 신침범의 정도에 좌우되며 신조직의 병리학적 소견은 신증상의 정도와 대략 일치한다. 하지만, 성인 보고는 드물고, 예후인자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성인 **HS** 신염 환자에서 임상적 그리고 병리학적 소견과 예후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1991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본원 신장내과에서 **HS** 신염으로 진단된 15세 이상의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적관찰 기간은 중앙값이 16.0개월 (평균 26.9±32.6개월)이었고, 범위는 1개월부터 16년 5개월까지였다. 피부 병변, 위장관 증상, 관절 증상, 고혈압, 자반의 재발, 증상의 발생 전 상기도 감염 여부, 간 효소수치 검사, 혈청 **IgA, anti- neutrophilic cytoplasmic antibody (ANCA)**와 크레아티닌 수치, 크레아티닌 청소율, 혈뇨의 여부, 그리고 신 조직검사의 결과 및 예후를 기록하여 이들과 예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 81명 중 신장 조직검사는 61명 (75.4%)에서 시행되었다. 신장 조직검사 결과는 **Grade Ⅲ**가 50.8%로 가장 많았다. 예후는 완전 관해가 81명 중 26명 (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등도 이상의 신기능 부전은 14명 (17.3%), 투석 치료를 받는 말기 신부전은 4명 (4.9%)에서 발생했다. 치료방법은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 받은 61명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로 포스파마이드 병합치료가 22명 (36.1%), 스테로이드 단독 치료가 14명 (23.0%),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 단독 치료가 17명 (27.%), 그리고 사이클로 포스파마이드 단독치료는 1명 (1.64%)에서 시행되었고, 경과 관찰만 한 경우는 7명 (11.5%) 이었다. 예후인자에 대한 분석에서 위장관 증상의 존재, 자반의 재발, 고혈압의 존재, 혈청 크레아티닌 치의 상승, 면역글로불린 **A**의 상승,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감소 그리고 신장 조직검사 상 반월상과 경화의 정도가 심한 것이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위장관 증상의 존재, 자반의 재발, 고혈압, 혈청 크레아티닌 치의 상승, 면역글로불린 **A**의 상승,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감소, 그리고 신장 조직검사 상 반월상과 경화의 정도가 심한 것이 성인 **HS** 신염의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Key Words : HS 자반증. HS 신염, HS 신염 예후
HS purpura, HS nephritis, HS nephritis prognosis